

술잔을 대신하여

정 병 옥

백사 전광용 학형과 더불어 반평생을 함께 덩굴다 보니 어느덧 백사가 환갑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어쩐지 백사의 환갑이 그리 실감이 나지 않는다. 후배들이 서둘러서 기념 논문집을 엮었다고 날더러 책 머리에 몇 자 적어서 기리는 인사를 묶어 달라고 하지만, 그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금의 백사의 건강으로 보아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데 무슨 환갑이며 무슨 기념 논문집이냐는 생각이 나의 마음 속 깊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원한 청춘, 이런 자연인 한 사람을 나의 주변에서 고르라며는 나는 서슴치 않고 백사를 꼽을 것이다. 사실 백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학문 연구에 있어서나, 창작 활동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나, 일상 생활에 있어서나, 운동 경기에서까지 나이를 의식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서 이렇듯 나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가 그만큼 젊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백사에게 환갑이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60갑자는 돌고 돌아 그가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 기미년이 다시 돌아 왔으니 백사의 환갑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만은 부정할 도리가 없다. 백사의 몸과 마음은 비록 청춘이지만, 그가 거처온 60갑자에 걸맞게끔 그가 이뤄 놓은 크나큰 공적은 환갑 잔치를 받는 데에 조금도 미흡한 구석이 없다는 뜻에서 나는 이 글을 쓰는 보람을 느낀다. 백사는 몸은 하나인데, 학자·소설가·교육자·영도력 있는 문단인, 그리고 유능한 가장이라는 다섯 사람 몫의 일을 훌륭하게 치뤘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아직도 팔팔한 젊음이 넘쳐나고 있으니, 참으로 백사는 하늘이 쏟아준 많은 복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기리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일찌기 제주도에 가서 천지연 폭포를 보고 “영원한 청춘”이라고 탄복한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곁에 서 있던 백사를 보고 어찌면 꼭 백사 같다 하며 웃겨주었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폭포라며는 누구나 실재 없이 쏟아지는 물기둥만 생각하고 그 물이 쏟아져서 고인 깊은 못을 얼른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백사는 쏟아지는 물기둥과 함께 못이 지니고 있는 깊은 속도 간직하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깊은 못에 고였던 물이 자연스레 흘러내리면 조용한 시내를 이루기도 하는데, 백사의 성품에도 시내가 지니고 있는 다정스럽고 섬세한 일면이 있는 것을 모를 사람이 더러 있을 것 같다. 정확히 말해서 백사의 폭포같은 성품에서 쏟아지는 물기둥은 잠시이고, 그 물이 고인 못의 깊이와 시내의 길이가 더 무거운 비중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인간 백사의 참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겨레가 자주 독립을 부르짖고 일어선 날이면서 백사 생애의 제 1막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백사는 3·1정신의 화신(化身)으로서 스스로의 생애를 꾸려왔었다. 부모님과 일가친척을 의오두고 적수공권으로 오늘의 백사의 그 엄청난 공적들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이다. 이제 겨레의 염원이면서 백사의 소망인 민족 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서원(誓願)을 세우고 제 2의 기미년을 맞았다. 백사는 어느 자리에서나 술잔을 높이 들고 “자아, 술잔들 들시다.” 하면서 주석의 흥취를 돋구어 왔었다. 우리는 백사가 이 책에 묶어진 논문들을,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술 한 잔을, “백사 생애의 제 2막을 올리면서” 또 한 잔을, “영원한 청춘 백사 폭포를 우러러” 다시 한 잔을, 이러한 술잔들인줄로 알고 기꺼이 이 책을 받아들 줄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아직도 남은 젊음이 창창하고 못 다한 일이 많은 백사이기에, 이번에 이 자리는 초입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백사 육심대로 치뤄내기를 기대하면서 기리는 인사로 대신하고 백사의 만수무강을 비는 바이다.